

서 평

David B. Yoffie, ed., *Beyond Free Trade: Firms, Governments, and Global Competi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1993, 466 p.

이 내 영

세계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화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정부규제의 완화—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편협한 자유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정치사회의 개혁을 유보해야 한다는 기득권세력의 보수논리로 발전되고 있는 인상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자유시장논리의 편협성을 지적할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과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론적 논의를 다룬 두개의 장과 8개의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사례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편집자인 요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서 국제무역과 기업의 경쟁전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학자이다. 그는 신고전파에 기초한 기존의 무역이론과는 달리 국제무역과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여러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략적 무역이론과 신제도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요피가 저술한 두개의 장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요피는 기존이론이 새로운 국제무역의 유형과 경쟁우위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경쟁우위에 관한 새로운 설명의 틀과 명제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명제들은 반도체, 컴퓨터, 전자통신 등의 첨단산업, 자동차와 건설장비 같은 중공업, 그리고 천연광물과 보험업 등 8개의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먼저 요피는 기존의 무역이론이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턴과 경쟁우위와 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그는 전통적 무역이론들, 특히 리카르도에 의해 시작되고, 헤셔—올린에 의해 정식화된 비교우위 이론이 국가의 고유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 점에서 정태적이고 새로운 무역 현상들—산업내 무역의 급속한 증가, 다국적 기업의 역할 증대, 정부개입의 심화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다른 대안적 설명들—Vernon의 상품주기론, Porter의 국가경쟁력 이론—이 정태적인 비교우위론을 부분적으로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적 환경이 어떤 회사나 국가의 세계경제에서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본

점에서 국가환경론적 설명이며, 이러한 국가환경적 설명은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전자통신망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의 무역과 경쟁우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피는 국가환경적 설명과는 다르게 기업이나 정부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무역의 유형이나 경쟁우위를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에 주목한다. 전략적 무역이론은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상당 부문이 과점,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와 같은 불완전한 시장의 조건들하에서 일어나며 소수의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경쟁우위가 결정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무역이론은 경험적 연구와 사례연구에 뒷받침되지 않고 이론적 주장이나 수학적 모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요피는 전략적 무역이론의 핵심주장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주장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요피는 산업의 경쟁력 우위는 일국의 환경, 산업구조, 기업조직, 정부정책, 그리고 산업의 관성이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산업의 특성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표 1과 같이 산업의 집중도와 정부개입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의 범주로 다양한 산업을 분류하고 경쟁우위가 결정되는 논리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 산업과 같이 분절되어 있고 정부개입 정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경쟁우위는 국가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 같이 산업이 분절화되어 있고 국가개입의 정도는 높은 산업에서는, 정치적 경쟁(Political Competition)의 논리가 지배하며 따라서 국가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정부정책이 경쟁우위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고 본다. 반면에 금속광물업이나 건설장비와 같이 산업은 과점적으로 지배되어 있지만 국가개입의 정도는 낮은 산업에서는, 과점적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이라는 경쟁우위의 논리가 지배하며 기업의 조직적 능력이나 경영전략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통신, 반도체 산업 등은 산업의 집중도 높고, 정부개입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서 경쟁의 논리는 통제된 경쟁

〈표 1〉 주요산업의 경쟁의 논리

고 산업의 집중도	과점적 경쟁 건설장비, 금속광물	통제된 경쟁 자동차 반도체 통신
	비교 우위 개인용 컴퓨터	정치적 경쟁 보험업
저	저-----고 정부 개입의 정도	

(Regulated Competition)이고, 이런 산업에서는 경쟁우위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국가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의 경우 관세장벽, 쿼타, 기술지원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인 개입이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의 경쟁력의 부침에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요피의 핵심주장은 특정산업이 분산되어 있거나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일국의 환경이라는 정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산업구조가 세계적으로 집중되어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경쟁우위의 변화는 주어진 환경적 요인보다 기업의 전략, 정부의 개입 등 동태적 요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피는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산업의 집중도와 종류에 따라 경쟁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주장한다. 산업이 분산되어 있고, 정부개입의 정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국가적 환경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되겠지만, 과점적 산업이나 국가개입의 정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경쟁우위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점적 산업에서 기업은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보다는 경쟁기업의 전략과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정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에서 정부의 개입은 산업의 경쟁우위에 제한된 영향만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적 정부개입보다는 산업기반의 확충이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반면에 과점적 산업에서는 국가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반면에 과점적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피의 주장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나 산업정책을 강조하는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이 책은 국제무역과 경쟁우위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적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 주장이 중요한 산업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연구이다. 주류경제학 연구들이 보이는 지나친 이론중심주의나 정치학 연구들에서 흔히 보이는 서술적인(descriptive) 사례연구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론적 일반화와 경험적 연구를 균형있게 결합시켰다고 보인다. 또한 이 책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국제화·국가경쟁력의 논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 포함된 다양한 산업들의 사례들은 국내산업의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국가의 규제와 개입을 줄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처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오히려 과점산업에 대해서는 유치산업보호정책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에 따라 경쟁의 논리와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Tel : 923-6371(O), 716-7088(H)